

여학생 운동의 강화를 위한 설문지

학번

성별

학년

학교

현 시계 여학생운동은 많은 조사와 연구 그야말로 실사구시의 자세가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조사와 준비 과정이 미흡했기에 관부 여러분들이 답하시기에 때로는 곤란한 실문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답한 문항 하나 하나가 부문운동의 발전 사회 변혁의 지름길임을 인지하시고 성의있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문제나갑니다.

1. 부문계열운동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 1) 전혀 들어 본 일이 없다. 2) 몇 번 들어보기는 했다.
 - 3) 중요성을 느끼며 고민하고 있다.
2. 생각하시는 부문계열운동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적어주십시오.
3. 부문계열운동으로써 여성운동이 가장 먼저 주력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여성에게 가해지는 각종 억압적 요소를 깨는 데 주력
 - 2) 전체 변혁 운동을 위해 여성들을 의식화 조직화 하는 것
 - 3) 이종적 과제로써 1), 2)를 동시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4. 총여학생회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 1) 필요하다.
 - 2)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 3) 총학생회 내의 여학생부서 정도로 족하다.
5. 총여학생회가 벌이고 있는 사업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 1) 만연해 있는 성폭력, 성차별 문화를 척결하기 위한 제반의 사업
 - 2) 여학우 대중을 조직화, 의식화하여 벌어나가는 정치투쟁
 - 3) 대중자치기구으로써 여성 간부들을 생산, 단련시키는 일
6. 총여학생회의 사업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이유도 구체적으로)
7. 여학생 운동(총여학생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1) 상층만 존재하는 조직적 체계
 - 2) 정세와 대중의 지향점에 닿지않는 광성적 사업 작품
 - 3) 여학 간부들의 자기 내용성 부족
 - 4) 기타(

8. 자신이 갖고있는 총여학생회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십시오.

9. 여학생운동 일꾼들이 가장 극복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정세에 민감하지 못한 것
- 2)편협된 자기 주장이 강하다.

예를 들어:

- 3)사업이나 생활에 있어 의존성이 강하다.
- 4)기타 ()

10. 학원내의 분위기가 남성중심이라고 문제점을 느끼신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11. 학생회 간부들의 비율과 중책이 대체로 남학우 중심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학내 남학우 숫자가 많으므로
- 2)봉건적 제도교육으로 남학우에 비해 여학우의 정치적 각성도가 떨어지므로
- 3)남학우보다 인간 관계와 사회 현실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므로
- 4)기타 ()

12. 본 교양집의 내용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 1)부문계열의 이해를 위하여
- 2)구국운동 속에서의 여성운동
- 3)자주적 여학생운동
- 4)정신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 5)수기

13. 총여학생회 학간연대조직으로 여대생대표자협의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있다 없다)

14. 알고 계신다면 어떤 기회를 통해서 엮었습니까?

15.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설문에 응해주신 간부 여러분께 무한한 동지적
예정을 느끼며 건투를 빕니다. 투쟁!**

= 여는 시 =

새벽을 가르는 여인들

새벽녘 불밝히고 학습하는 사람은 알겠네
찬바람 뒤엎켜 내리는
한 겨울의 눈송이 의미를

밤잠을 설쳐가며
눈 비비고 일어나 도서관 앞 발 비비며
모락 모락 김나는 따뜻한 온정을 전하는
사람은 보겠네
간부를 유혹하는 사랑의 목소리를
간부를 기다리는 믿음의 눈웃음을

어둠을 사르는 새벽의 눈발도
식민의 아름다움인 것을 알기에
오늘도 무릎포개고 앉아 토론하는 사람들
힘겨운 어깨를 두드려주며
눈물 코물 닦아주며 어머니같은
여성들이 사는 곳
때로는 토라지는 일도 있겠네
때로는 가슴미어지도록 속상한 일도 있겠네
하지만 우리에게겐
빛밝은 새날을 함께 할 동지가 있지않나

새벽을 가르는 사람으로 살겠네 우리는
혁명을 준비하는 어머니로 실겠네 우리는

차 례

여는 시 ----- 1

여는 글 ----- 3

부문 계열의 이예를 위하여 -- 4

구국운동 속에서의 여성 운동 - 10

지주적 여학생운동 -----

정신대 문지의 예결을 위하여 -- 18

수기/ 제 2의 동지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 23

용감한 여성들이 사는 나라

내 조국 한반도를 사랑합니다.

교양집을 내기로 결정한 순간 우리가 모여있던 회의실은 순간 분홍 빛 미래를 설계하는 신혼 부부의 신방마냥 설레임에 들떴습니다. 전체운동 속에서 제 목소리를 찾아가려는 여대협 위상이 금방이라도 세워질듯 했고 기간 각 학교에서 부문운동에 대한 몰이해에 근거해 발생했던 총여 간부들의 설움이 한번에 씻겨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몇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의 어깨는 마냥 무거워져갔고 간혹 이 정세에...라는 시답지않은 평가도 받아야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 말 달리던 조선여인의 기상으로 어찌겠습니까? 한번 뽐났으면 경찰서 쇠창살이라도 잘라야죠. 그런 심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성해방 조국해방의 한 뜻으로 당당히 굳센 주먹 움켜쥐며 수원 교도소에 단식중인 남부여대협 의장님을 생각하니 남아있는 우리들의 땀은 너무도 많더군요.

우리 경인 20만 애국 청년들이 변혁의 한길에서 알아야 할 것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을 그냥 넘긴다는 것은 민족의 대천지 원수 미-김 일당같은 짓이기에 미약하나마 여대협의 이름을 걸고 나섰습니다.

한을 한을 모여지는 힘들은 반드시 백만청년학도, 7천만 민중의 가슴에 닿아 우리는 박흥같았던 무더위와 폭악적인 공안탄압을 딛고 일어선 오늘을, 20만 청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길에 여성전사의 당당함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손을 잡아주십시오!

반미항전 50년 9월

경기남부여대협 의장권한대행

중앙대학교 총여학생회장 김 태연

부문계열운동이 대한 이해를 위하여

“백만학도의 다종다양한 자주적 이해의 요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구국투쟁을 풍부화, 대중화 해내고 조직대오를 더욱 굳건히 세우는데 부문계열운동이 가지는 중차대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종다양한 생활공간에서 펼쳐지는 백만학도의 지혜의 힘을 자주, 민주, 통일투쟁으로 모아내는데 부문계열 조직운동이 하나의 고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전대협 창간호에서 -----

부문계열운동은 단순히 사회적 관계, 질서의 토대를 유지하기 위한 상부구조의 역작용으로서 나오는 운동만이 아니라 민족해방투쟁을 해 나가는데 있어 동력으로서 작용하는 운동으로서 성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문계열운동을 학생운동 내에서 이해하려면, 한총련의 조직운영의 원리에 따라 그 구분을 두어야 하며 자주적 학생회가 학우들의 다종다양한 부문계열운동의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조직운동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1. 부문계열운동의 정의

부문계열운동이란 학생이라는 사회적 처지 이외의 또다른 처지에 따라서 그리고 학생운동내의 전공별 특성에 따라 근거하는 학우대중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운동입니다. 또한 학우대중은 부문계열운동을 더욱 풍부화하며 사회부문계열운동을 활성화, 전투화시킵니다. 이것은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분출되는 민중의 힘과 지혜를 자주, 민주, 통일의 대해로 모아가는데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학생운동 내에서의 일반적인 임무 외에 부문계열운동에서의 독자적인 임무는 골간조직과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학생조직에서는 골간조직을 더욱 튼튼히 하는데 부문조직이 자신의 독자적 내용으로 복무합니다. 반면 자주적 학생회는 부문조직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 실현을 위한 학우들의 삶을 책임집니다. 또한 부문계열운동은 그 내용에서 뿐만아니라 학생회 기층조직의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총련 조직강화의 관점을 가지고 백만학도의 대표적 조직으로서의 한총련 조직발전의 방향속에서 부문계열운동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현재 부문계열운동의 활성화는 한총련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부문운동과 계열운동

부문계열운동은 보통 부문운동과 계열운동으로 나뉘어 집니다. 부문운동과 계열운동의 역할은 위의 기본적 요구와 같으나 전체운동에 복무한다는 형태가 조금 다른 것입니다.

부문운동은 여성운동, 종교운동, 문화운동 등등과 같이 그 운동이 지향하고 있는 바를 위해 제반의 억압요소를 적결하고 그 자체의 특성을 무기로 사람들을 의, 조직화하는 것으로 그 운동의 지향을 실현하고 전체운동에 복무합니다. 또한 계열운동은 부문운동(계급계층운동-학생운동, 노동자운동, 농민운동)에 속해있으면서 그 운동내에 전문별, 전공별로 운동영역을 차지하며 그 전문영역에서 순수지향을 억압하는 요소를 깨나가는데 전문인력을 의, 조직화하여 자체의 내용을 획득함과 동시에 전체운동에 복무합니다. 곧 부문과 계열운동은 꼭 구분되는 조직으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상호보완적이기도 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얘기했듯이 부문, 계열조직을 이해할때 한층련의 조직운동의 강화 측면에서 부문계열운동조직을 사고해야겠습니다. 조직의 탄생과 강화, 발전은 도식적이지 않으며 주체의 노력, 여러가지 사회적 환경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문계열조직을 구분하는 가장 큰 잣대는 크게 학생회 골간을 조직적 틀로 하느냐(계열조직), 동아리 형태를 조직적 틀로 하느냐(부문조직)입니다. 그래서 한층련은 이러한 현재 존재하는 부문계열조직의 구조와 운영의 특성에 따라 부문조직연석회의와 계열조직연석회의를 따로 구성하여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문운동과 계열운동은 이 운동을 지향하는 사람의 처지가 어떠한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요구는 같은 것입니다.

3. 부문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

*사회여성운동과 여학생운동의 관계

사회여성운동과 여학생운동은 여성이라는 처지에서 나오는 여성억압의 요소를 여성이 주체가 되어 깨나가는 운동임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운동은 각각에서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이 다소 다른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여성운동은 그 운동영역이 사회라는 점에서 여성문제가 첨예하게 일어나고 직접적으로 여성에게 와닿는 부분이 많다는 것 즉, 각 여성의 처지가 직장여성, 주부와 같은 여성문제가 총체화되는 자리에 있기에 현재 자신이 처해있는 처지 하나하나를 깨어가는데 주력하고 이것이 여성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조직화되어 사회구조적 모순에 다소나마 타격을 줌으로써 여성해방의 길로 일진보하고 전체운동에 복무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회여성운동이 전체운동에 복무하기 보다는 자체의 내용을 풀어내는데 주력하여 전체운동에 도움을 주는 정도로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 여성운동의 한계는 많습니다. 너무도 넓은 사회에

서 조직화 할 수 있는 여성에 비해 활동가들이 적어 어려운 점,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체모임은 많지만 지도가 안되고 조직화되지 못하는 점 등 객관적 어려움과 운동을 풀어나가는 주체의 문제, 조직적 한계들은 계속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독자성을 가지며 사회여성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에 대해 무조건 골간의 내용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현재 조직적 수준을 직시하고 여성운동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차 전체운동과의 결합점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원내의 여학생운동은 운동을 이끌어갈 주체들이 여대생이라는 점과 대학생이라는 특권층속에서 여성문제가 많이 가리워져 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즉, 사회에 있는 여성에 비해 다소 불안감은 있지만 여성문제들이 첨예하게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관망하거나 걱정하는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학생운동은 사회여성운동에 비해 의식화측면이 어렵고 학원내의 여성해방에의 여성 자체 움직임도 적어 조직화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직된 여학우들이나 소모임에 대해서는 총여학생회라는 지도조직이 있어 더 많은 핵심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대생이라는 청년학생으로 가지는 위치는 청년학생이 가지고 있는 품성과 조직적인 생활에 의한 집단 의식, 진보적인 사상을 사회에 비해 더 많이 접할 수 있기에 여성운동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이끌어갈 주체들의 문제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운동에 복무하는 형태도 여학우의 처지를 깨워가는 의식화와 조직화를 기본으로 여학생 자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원내의 투쟁과 사회전반의 여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투쟁을 함께 진행하며 청년학생이 가지고 있는 전체 변혁운동의 주력군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문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

일반적으로 여성운동이 부문으로써 가지는 특성은 종교운동이나 문화운동과는 달리 -종교나 문화라는 무기를 가지고 자신들이 지향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변혁을 해 나가는 점- 여성이라는 근본적 처지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사회변혁이라는 전체운동과 함께 진행시켜나가야 합니다. 즉, 여성의 근본적 처지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단순히 사회가 변혁이 된다고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변혁되면 사회적 여성 억압요소가 척결되어 여성문제가 첨예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해결이 되지만 근본적인 여성해방투쟁 즉, 여성이 하나의 해방된 인간으로 되어가기 위해서는 끈질기고 다양한 투쟁속에서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운동속에서 여성운동이 가지는 자체의 특성이라면 전체운동에 결합, 복무하는 특성은 전체운동의 내용적 풍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하는 여성의 문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결코 여성운동이라는 부문운동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지점을 전체운동화시켜내는 과정에서 찾아내고 전체운동이 풀어나가고 있는 사회, 제도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등에서 여성이라는 처지에 기반한 문제점을 내용적으로 풍부화시켜내는 것입니다.

***부문운동으로서의 여학생운동**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여성들의 봉건을 타파하고 더높은 항일의식으로 강고한 투쟁을 전개한 것에 우리나라의 여성운동의 전통이 있습니다. 여성운동은 일시 그 전통이 끊긴 것처럼 보였으나 식민지 조국을 살아가는 것이 처지에서 그 전통은 절대 끊긴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의 자주의식을 더욱 높여내면서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을 벌여내는 것에 여성들의 자신의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식민지이기에 겪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년학생이면서 여학우라는 처지에서 나온 이해와 요구를 집단적으로 풀어나가는 조직적인 활동이 여학생운동입니다. 여학생운동은 여학우들의 자주성을 더욱 높여내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한층련의 부문조직으로 여학생조직은 전여대협이 유일한 여학생 대중조직입니다. 이들은 각 학교단위 여학생조직(총여학생회, 여학생부, 여학생자치위원회 등)을 기본골간으로 가지고 있으며 지역단위에 여대협이 대부분 건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어려움으로는 각 총여학생회가 각 학교단위에서 부문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가의 어려움입니다. 다른 부문조직과는 달리 총여학생회는 총학생회와의 관계가 중앙운영위로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학생운동자체의 부문운동으로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향입니다. 총여학생회 건설에서부터 전체 학생운동에 있어 워낙 골간에 복무할 것에 대한 요구가 컸기 때문에 항상 골간의 요구를 지금의 조직적 수준에 맞게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주로 고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또한 부문조직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학생운동의 자기이념성, 정체성이 정리되어진 것은 불과 몇년 되지 않았습니 다. 우리나라의 여성운동의 전통과 성격을 가지고 여학생들의 자주성을 드높여내면서 민족해방투쟁을 벌여낸다는 자기 내용을 가지고 총여학생회 활동이 진행된 것과 전국적 통일을 확보해 간 것은 이렇듯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87년부터 각 지역여대협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89년 전여대협으로 모아지면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이것은 여성계에게도 자극을 주고 있으며 여기에 청년학생의 자기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부문운동을 잘 할 데 나서는 학교단위의 어려움

“총여학생회가 왜 있나?” “우리도 총남학생회나 만들자.” 등등으로 이야기 되던 예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요사이도 이런 얘기가 가끔은 나옵니다. 심지어 “총여학생회 사업은 무조건 전체투쟁에 복무할 수 있으면 된다.” 또는 구체적이 지는 않지만 “총여가 총학에 버금가는 역할을 해야한다.” 는 식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총여해체설은 어쩌면 발전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단순하게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학생회 조직체계를 어떻게 내올까를 고민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문운동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한층련이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 실현, 학우들의 삶에서부터 학우들의 삶을

책임지는 활동을 선언하고 있는 마당에 총학생회의 부문운동의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총학생회가 부문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주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간 총학생회라는 골간학생운동 과정에서 부문운동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으며 그러한 속에서 부문운동을 잘 지도할 데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각 학교에서의 모습들에서 당장의 어려움만으로 조금씩 정리해 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부문운동을 활성화 할 데 대한 고민을 높여내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관계들을 정립시켜나가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문운동의 활성화나 관계정립이 전체구국운동의 발전에 복무하고 학생회를 더욱 튼튼히 꾸리는 데 기여한다는 관점을 명확히 세우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5. 부문계열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간 부문계열운동에 대한 평가

지난 몇년간 부문계열운동은 많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학우들의 다양한 이해 요구에서 출발하여 폭넓은 영역의 내용으로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성폭력척결 투쟁과 반에이즈 미군철수투쟁 등이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들입니다.

첫째, 학생부문계열조직은 투쟁의 형식과 방법의 다양화를 이루는데 모범적인 사례를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중소규모단위의 집회, 공청회, 선전전 등을 다양하게 벌여냄으로써 전체학생운동의 투쟁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이것은 또한 자신들의 주체의 준비정도에 따라 자립적으로 수행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학우들을 투쟁의 주인주체로 묶어세우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부문계열운동은 사회 각 계급계층운동에 능력있는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면서 사회 각 계급계층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계급계층별 부문운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통일전선운동 강화에 기여한다는 의미 또한 가지는 것입니다.

셋째, 학생부문계열운동은 학생운동 골간단위에서 학우들의 다종다양한 이해, 요구로부터 출발한 학우들의 삶을 책임지는 활동을 보장하며 학생조직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 자주적 학생회 구현은 부문계열운동이 스스로 자기 내용으로써 학우들의 다양한 삶에 근거한 활동을 벌여냄으로써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사업과정에서는 극복해야 할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문계열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속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문계열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제

학생부문계열운동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먼저, 전체적이고 통일적인 전망을 내야 합니다. 첫번째로, 각 부문계열조직들이 갖는 독자적인 강령적 내용들을 전체학생운동의 과제를 기반으로 총화, 정식화 시켜야 하겠습니다. 둘째, 각 부문계열조직간의 상호연대성을 더욱 높이고 한층련, 각급 학생회와의 통일집중된 조직적

관계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세제, 각급 단위 학생회와 부문계열조직의 사업내용과 대중투쟁을 통일적으로 배치, 수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간에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조직사업에 있어서도 핵심은 사람입니다. 학생부문계열 기층조직에서 활동경험이 충분히 있는 자를 잘 단련시키고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계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주로 골간단위에서의 인식의 천박성입니다. 각 단위에서는 전체 성원들에게 부문계열운동에 대한 사상적 관점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교양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전대협의 전통을 이어 한총련의 조직사업과정에서도 검증되었듯이 모범단위를 잘 세워내고 이를 전체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 우리 조직운동의 관점입니다. 한총련 조직적연대에서 나서는 현실적 대안을 중요하게 보면서 차근히 조직건설 강화사업의 관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부문계열운동에 대한 이해와 함께 솔직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작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 구현에서, 백만학도의 삶을 책임지는 자세로 시작합시다.

“사람의 준비가 부문계열운동 활성화의 출발이며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 한총련 강화의 위력한 무기입니다.”

학우들의 다양한 학문적 생활적 이해와 애국의 열정을 하나로 집약, 집중하기 위해서는 각급단위 학우들의 생활적 처지와 이해를 잘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두가 주인,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조직들을 묶어야 할 것입니다.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생활, 학문, 투쟁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 들어갔을때 압도적 다수 학우들의 참여와 필기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때 부문계열조직별로 학우들을 조직, 발동한다면 투쟁의 성과는 물론 학생회 강화로 복무해 들어갈 수 있으며 백만학우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도 조직적, 대중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백만학우를 잘 세워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처지와 조건에 부합되는 의식화 조직화 사업을 진행했을 때만이 가능하다.”

식민지의 청년학생들은 생활, 학문, 투쟁을 이야기 할 때 조국과 민족을 위해 올바로 쓰여지는 것을 고민합니다. 모두의 가슴속에 용솟음치는 애국의 열정을 인생관화하는 문제는 백만학도 모두가 애국자로 나아가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학생회는 투쟁사업 중심의 운영이 아니라 애국적 삶을 총체적으로 실현해 들어가는 운영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부문계열운동 활성화의 한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구국 운동 속에서의 여성운동

들어가는 말

여성운동이 올바른 발전을 하자면, 여성해방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의 운동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싸워 나가야 진정한 여성의 사회적 해방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밝힌 올바른 사상이 우리 운동속에 튼튼히 서야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여성운동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강인하고 헌신적인 여성운동가들이 많이 배출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여성해방의 문제에 관한 변혁적 사상의 성립과 실제 각국의 변혁과정에서 여성운동이 견지해 왔었던 원칙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여성운동이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를 밝혀 보고자 한다.

몸 말

1. 한국 여성문제에 대하여

오늘 우리의 여성운동이 고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문제와 여성운동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확립해야 한다. 여기서 먼저 고려되어야 할 점은 한국사회 전체의 모순구조와 여성문제와의 관계, 그리고 민족민주운동과 여성운동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여성문제는 구체적인 현실에 존재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여성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노동에서의 배제, 가사노동 전담, 사회적 노동에서의 차별과 착취, 성의 상품화, 그리고 그로 인해 남성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종속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여성들이 겪게 되는 억압과 종속은 외세의 신식민지적 지배의 현실로 인해 가중되어 나타난다.

수십년간 계속된 미국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지배등으로 인하여 한국 여성들의 사회, 정치적 지위는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렇듯 한국의 여성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미국이 끼쳤던 영향들은 빼놓아서는 안될 중요한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여성운동 내에는 한국사회의 구체적인 모순구조를 간과한채 여성문제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편향된 입장이 존재하고 있다(이중체계론). 이 이론은 여성문제가 계급문제와는 무관하게 가부장제의 성립으로 부터 발생하며, 따라서 여성문제의 해결도 계급사회의 종결과 무관하게 이루어 질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중체계론은 여성문제의 기원과 본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한계를 안고 있다. 이 이론은 계급과 성의 이중구조를 여성억압의 구조로 설정한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억압은 인류역사의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여성문제는 자본주의의 지배와 함께, 인류역사상 변함이 없는 남성애 의한 지배라는 계급과 성, 양자에 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이중체계론은 남녀의 관계를 적대적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근로민중인 남성과 여성을 갈라놓고 지배층 여성과 근로여성 사이의 계급관계마저도 은폐시키는 결과를 낳아, 우리 여성운동에 적지않은 혼란을 야기 시켰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여성운동이 전체 변혁운동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여성들만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운동으로 잘못 인식되어 왔던 데에는, 바로 이러한 이중체계론 영향이 컸음을 지적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의 여성문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모순구조로 인해 여성이 받게되는 억압과 예속, 차별과 착취의 문제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한국사회의 모순구조는 어떠한 것인가.

이제까지의 논의의 성과들을 일반화 시켜 본다면 한국사회는신식민지적 예속하에 있는 사회이며 또한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 일반에서 여성문제는 자본주의적 계급관계로부터 생겨난다. 자본가는 최대한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연적인 차이를 차별화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분열시키려고 한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성차별이다.

그러나 이같은 자본주의사회 일반에서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문제의 본질과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한국 사회는 민족적 예속이라는 문제를 근원적인 문제로 안고 있는 사회이며, 따라서 민족적 예속의 현실이 어떻게 여성문제를 규정하는가를 전면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고서는 한국의 여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2. 구국운동 속에서의 여성운동의 지위와 역할

1. 여성문제와 노동문제 민족문제의 상호 관계

여성문제와 노동문제, 민족문제 사이의 관계 즉 위상과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있다.

하나는 여성문제가 민족문제나 계급문제 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는 계급이 민족보다 상위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계층문제가 계급문제보다 우선적, 중심적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는 노동운동내 온정주의와 결합, 노동현장에서의 남녀 차이를 차별로 제도화 시킨 사용자와 손발을 맞추어 남성의 여성차별문제만을 강조함으로써 노동운동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확대해석하고 남성을 밀어 낸다는 권력쟁탈의 분파적 모습으로 작용하여 노동자 남녀간의 분열을 조장하였다. 이 현상은 동요하는 소자산 계급의 급진적 경향과 외세적 급진여성이론이 결합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 민중과 유리되어 관념적으로 문제 파악하는 것으로 물적 토대와 이론적 근거를 외세로 부터 받아들인데 원인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여성문제가 계급문제와 대등한 위상, 동일한 범주로 동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견해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견해는 남한의 많은 여활가가 채택하고 있는 견해로 계급, 계층을 동일 범주, 위상에서 파악, 노동운동의 계급, 계층문제를 평면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이는 범주가 다른 계급, 계층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 못하는 것으로 이론 실천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계급, 계층**
①계급 : 생산관계를 둘러싼 인간관계의 집중적 형식으로 생산수단의 소유를 중심으로 파악한 인간관계. (적대모순)
②계층 : 자연적, 사회적 동질성을 확보한 사람들의 집단. 즉 여러 사회관계의 부차적이고 양적인 인간관계의 집적. (비적대모순)

2. 민족모순은 불구대전적 모순관계

식민지의 종속국일 경우 민족문제가 계급, 계층의 통일체로서 등장하므로 여성운동이 민족운동의 주요 구성 성분이 되면서 집중체로 역할을 하게 된다.

여성운동은 봉건적 잔재로서 여성의 의존성, 예속성 굴종의 삶을 강요하는 것에 반대함과 동시에 제국문화의 찌꺼기를 남한에 전파시키는, 즉 민족의식 자주성을 마비시켜 역사를 후퇴시키려는 반민족적 경향에 대해 반대해야 하며,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반봉건적 잔재를 깨려면 제국주의와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안된다. 남녀 차이를 적대, 차별관계로 만드는 물질 토대에 반대하여 민주남성과 단결해야 한다. 여성운동의 일차 과제는 노동자와 단결하여 직장 사회 가정에서의 반봉건적 잔재를 철폐하고 제국주의를 타도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한편, 민족민주운동에서의 여성운동은 계급과 계층을 통일시키는 중요한 고리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제 여성운동은 새로운 일대 전환을 해야 한다.

노동자를 중심으로 계급구조를 철폐시키면서 여성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여성운동은 여러 장점을 안고 있다. 상대적으로는 합법성을 쟁취하기 쉽고 사회 여론화 시키는데도 어렵지 않으므로 여성운동은 민민운이 합법성을 쟁취해 나가는데 기여해야 한다. 여성운동은 민족, 계급, 계층(여성)의 3가지 질곡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 성장하며 깨어나올 것이다.

이제 잘못된 이념을 극복하고 자주적, 주체적 여성운동의 맥을 형성해 나갈 때가 되었다.

3. 구국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의 과제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지배를 용이하게 하며 민중들을 무제한 착취하기 위하여 낡은 봉건적 사회관계를 그대로 유지 공고화 하였다. 그리하여 식민지 사회에서 봉건적인 남녀 불평등의 사회관계가 유지되며 그것은 식민지적인 민족적 불평등의 관계와 결합되게 되었다. 따라서 식민지 나라여성들은 누구보다도 자주성을 가혹하게 유린당하게 된다. 식민지 나라에서의 여성들은 정치적으로 무권리하다. 여성들의 정치적 권리는 고사하고 남녀 불평등으로 인하여 초보적인 인권마저도 유린되었다.

민족적 차별에 이러한 성별차이가 결합됨으로써 식민지 여성들은 이중, 삼중의 착취를 당하였다. 경제적 부분에서 식민지 여성들의 노동보수는 일반적으로 종주국 노동자들의 임금에 비하여 그리고 식민지 남성 노동자 임금의 절반도 안된다. 또한, 고을의 소작료와 제국주의의 식민지 농업 수탈체계 속에서 여성농민은 '새경없는 머슴'의 신세보다 못한 착취와

가난에 시달려야 했다. 봉건적 잔재가 농촌사회에 더욱 뿌리 깊게 남아있고 남존여비의 봉건적 사상으로 인하여 여성의 지위는 말할수 없이 낮아 무지와 사회적 학대가 여성의 삶을 옥죄고 있었다.

범죄적이며 파렴치한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세력들은 그것도 모자라 제국주의 군대 위안부로 매춘굴로 식민지 여성들을 끌어내어 야만적으로 유태하였고 그 방법은 정신대의 경우와 같이 폭력과 강제에 의한 것일수도 있고 기아의 굶주림과 공포를 견딜수 없어 매춘의 시장으로 나서야하는 철저히 자본주의적인 것이기도 하다. 더우기 식민지 사회에서 대다수 근로여성은 봉건적 제도와 인습에 의해 인신의 자유를 속박당하고 교육의 기회도 받을수 없는 처지였다.

식민지 사회에서의 여성운동은 제국주의를 몰아내는 것에 일차적 과제를 갖게 된다. 이는 두가지 이유에서 비롯되는데...

첫째, 제국주의는 식민지 여성의 억압과 모순의 주도한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제국주의를 몰아내지 않고서는 여성들은 정치, 경제, 문화적인 면에서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없으며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에 시달릴수 밖에 없다.

둘째, 제국주의를 축출하고 이후 건설될 민족자주정권에서 만이 여성의 사회적 해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중에 의거한 민족자주정권이 수립되어야만 여성들의 사회적 해방과 남녀평등이 이루어질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조건위에서 여성들의 주체적 노력이 결합되어 이후 보다 더 높은 혁명단계로 나갈 수있는 인적, 물적 토대가 형성될 것이다.

맺 음 말

한국의 여성운동사의 역사는 여타의 사회운동과 마찬가지로 외세의 지배와 분리되어서는 정확히 이해 될수 없다. 즉 외세의 지배하에 있는 나라는 무엇보다도 민족해방의 과제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애국민주세력의 결집이 관건이 되는데, 만약 민중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을 민족민주운동의 대열로 묶어세우지 못하면 운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이론적으로 인식하게 된것이다. 또한 여성운동 내부에서도 여성문제의 해결이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인 민족문제의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이루어지면서, 여성들이 겪고있는 억압과 착취의 문제를 민족해방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이제 90년대에 우리 여성운동에 주어진 과제는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일어서고 있는 광범위한 여성들을 대중조직적으로 확고하게 묶어내어 정치세력화 하는 것이다. 여성해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한 진정한 민족해방, 계급해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중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여성운동의 과제를 자신들의 절실한 과제로 인식하고 운동의 주인으로 서야 한다.

이러한 조직적 과제를 담당하는 여성운동단체들은 올바른 여성운동의 이념하에서 민주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여성운동의 조직적 기반과 더불어 민족민주운동의 대열을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주적 여학생운동

1. 여학생의 존재 규명

여학생운동을 이야기 하는데 있어 먼저 청년학생으로서 가지는 여대생의 특성에 대해 바로 짚어보겠다.

여학생은 청년학생으로서 정의감이 강하고 선진사상과 시대추세에 민감하여 민족적 각성이 빠르고 높은 조직성과 투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학생이기에 정서적이고 다정다감하며 기본적으로 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주위사람의 고통에 민감하다. 이러한 관점을 바로 가져야지만 여학생운동의 방향성과 청년학생운동의 방향성이 같은 것으로 위치지워질 수 있다.

여학생은 이러한 긍정적 본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그 본성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왜곡된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 우리사회의 여대생이라고 하면 노동착취와 봉건적 천대속에서 억압된 삶을 살아가는 대다수 근로 여성들과 비교해 볼 때 어쩌면 특권적 처지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여대생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고 사회의 중간층 이상의 남성과 결혼하여 계급적 상승을 꿈 꿀 수도 있는 존재이며 문화적 생활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 발버둥쳐야 하는 생존을 위한 노동으로 부터는 면제받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여대생의 모습은 아무 근심 걱정도 없이 현실로 부터 동떨어져 책을 끼고 강의실을 드나들고, 휴일에는 미팅과 데이트로 시간을 보내며 첨단 유행과 아름다운 옷과 화장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는데 최고의 관심을 가지며, 미국식 입맛과 문화에 찌들려 팝송과 미국배우를 숭배하고 졸업하고 나서는 배운 전공지식을 썩혀버리는 한심한 존재들로 묘사되고 있다. 여대생을 겨냥한 각종의 상업잡지들이 자랑하는 판매부수와 여자대학 주변의 풍경, 일부 여학생 사이의 유행과 사치풍조는 이러한 주장을 정당화 시켜 주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남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각성이 낮고 학교 생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활동적인 여학생이 많기는 하지만 전체 여학생을 놓고 보았을 때는 그러한 점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여대생의 사고방식 자체가 소극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개개인으로서 보았을 때는 자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나 학과공부에 적극적인 성실성을 발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또 자기실현 의지도 높아서 대부분의 여대생이 취업을 통한 사회적 자아실현을 일찍부터 준비하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문제는 이러한 성실성이 좁은 범위에 제한되어 있으며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폭넓은 인간관계와 사회현실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실혹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도전할 용기를 쉽게 가지지 못하고 있다. 즉, 남학생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선뜻 나서지는 여학우를 잘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또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졸 실업난과 취업차별로 인해 실업난이 여대생에게도 집중되면서 3학년 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여대생이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진출준비를 관점을 세워가면서 차근차근 진행시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고학년에 들면서 개별화 되는 경우가 많고 문제를 집단적으로 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분노와 좌절을 느끼면서도 뚜렷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와 문제는 왜 발생하는 것인가?

제국주의의 노동착취와 봉건적 사회제도의 모순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

남녀 차별구조를 이용한 제국주의의 노동착취는 여대생의 사회적 진출을 가로

막고 있다. 즉, 여대생 또한 여성에 대한 취업기회의 박탈과 각종의 차별적 조건으로 유지되는 고용구조 속에서 수년동안 공부하고도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고등실업자 신세를 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열려 있는 교직, 공무원, 전산, 통역, 번역 등으로 한정되는 제한된 사회진출 분야에서조차도 여성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유도해 임금을 저하시키고 극히 제한된 진출밖에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제국주의에 의해 더욱 공고화 되는 봉건적 사회관습은 여대생으로 하여금 성차별의 모순에 빠지게 된다. 즉, 결혼 제일주의, '여자팔자, 결혼만 잘하면 되지' 하는 통념이 만연되어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이거나 결혼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의존, 환상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다. 집안에서의 봉건적 규제도 심하여 일상적인 남학생과의 생활 속에서 의존적이며 예속적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20년간 교육 속에서 길들여진 수동성과 의존성에 의한 것이며, 민주적이라고 하는 대학생활에서조차 이러한 근성이 보편화 되는 것은 대학내에서도 존재하는 성차별의 봉건적 생활풍토에 기인하는 것이다.

여학생들은 여자선배들과 주위의 여성들의 삶을 보면서 졸업 이후 사회노동에 참가하여 닦쳐올 여성에 대한 식민지적 억압과 차별의 현실을 깨닫고 있다. 또한 거의가 20대 초반이기에 양키의 퇴폐 향락문화의 부산물인 인신매매, 성폭력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속에서 여학생들은 식민지 여성으로서 차별적 억압상황을 조금씩 느껴 나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여대생의 위치는 변혁운동과 여성해방의 선봉대로서의 조건과 지향을 부여받고 있으며 남한 여성의 혁명성이 무한정 잠재하고 있는 존재이다.

2. 여학생운동이란?

여학생운동은 여학우들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실현시켜 나가고 학원내에서 여학우들의 역할을 높여 나가는 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하는 대중운동이다. 그리고, 여권 신장주의의 의미를 가지는 페미니즘과는 확연히 분리되는 것으로써 여학우들의 자주적 요구를 짓밟는 미제와 지배세력을 반대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변혁운동과 밀접히 결부되어 그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 해방과 남녀평등을 실현시켜 나갈 것을 자기의 방향으로 갖는다.

여학생운동은 여학우 대중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자주, 민주, 통일과 여성해방운동의 주체로 일으켜 세우는 대중 의식화, 조직화 사업과 투쟁사업을 자신의 1차적 임무로 한다.

여학생운동은

1)지금까지 제도교육 속에서 주입받아 왔던 성차별 의식을 없애 나가기 위해 남녀 공히 바른 여성관과 인간관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쟁취해야 한다. 그 외 교과과정 속에 있던 남녀차별주의적 내용을 일소해야 할 과제가 있다.

2)제국주의에 의해 학원에까지 만연해 있는 성차별, 성폭력 문화를 학원에서부터 추방하고 이를 대신할 건강한 문화를 양산한다.

3)여학우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진 지금, 사회진출의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4)기층 민중여성의 생존권 투쟁의 지지, 지원 및 각 계급 계층 여성과의 연대를 통해 여성 모순을 야기시키는 지배계급에 대한 투쟁을 벌여 내는 목적의식적 운동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 여학생 스스로의 자주적인 대중조직의 건설을 통해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운동이다.

또한 학생운동의 부문으로서의 학생운동의 대중화와 강화를 이루어내고 여성운동의 선두주자로서 여성운동을 질높게 고양시키며 나아가 전체 변혁운동에 복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3. 여학생운동의 한계와 오류

1) 중앙 지도단위 조직력의 미비로 장기적 관점에서 전망을 내어오지 못하며 중앙으로서의 통일 집중이 되지 않아 여학생운동의 독자적 투쟁 사안을 대중적으로 풀어내지 못하였다.

2) 여학운이 대중사업에 치중하다 보니 여학생운동이 전체 여성운동을 위해서라도 담보해야 할 과제인 여성운동의 내용적 토대를 쌓아 나가는 작업이 미진하였다.

기간 여학생회 사업의 성과로 여학생회 나름의 사업방식과 흐름을 잡아 가게 되었으며 사업의 규모 또한 대규모적인 사업을 벌여내게 되었다. 그러나 여학생운동이 진정 부문운동으로서 자기 내용을 가져 나가려면 지속적으로 여성운동 및 여학생운동에 대한 연구 조사작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실무에 쫓기다 보니 많이 놓치고 있다. 이제 여학생운동의 내용에 기반한 사업을 해나가려면 여학단위 전문성에 근거한 투쟁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3) 단대, 과 여학 골간이 자활력을 가지면서 자기 대중에 근거하기 위해서는 그 계열에 맞는 내용을 가져야 한다. 단대, 과의 여학생회 골간이 대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어려워하였던 것도 자기대중에 근거한 내용이 아니라 총여의 하청업체식의 사업내용을 계속 가져왔기 때문이다. 중앙단위는 단위의 자활력을 높여 수 있는 지도력을 내려야 하고 정서에 근거한 독자적인 자기 내용을 마련하기 위 노력해야 한다.

4) 여학 골간 단위간부를 올바른 관점으로 단련시키고 재생산시켜 내는 체계와 형식과 내용이 없다.

여학생회 단위 간부의 재생산 문제와 핵심이 없다는 얘기는 매 해 얘기되지만 여학 단위의 활동가들을 단련시켜내고 핵심을 만들어 가는 과제와 여학생회의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여학 단위의 간부들을 어떻게 활동가로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되고 있지 이것을 풀기 위한 조직적 담보가 되지 않고 있다.

5) 여성활동가들에게 여학생운동에 대한 관심을 심어 줄 만한 조직적 담보가 되지 못했다.

6) 대중사업의 형식적 측면을 중시하다보니 사람의 준비가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체계를 건설하려는 오류를 낳았다.

총여, 단여, 과여의 골간체계 강화를 중심에 두면서 주체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체계부터 띄워보자는 형식주의적인 측면이 많았다. 그래서 있던 단여가 없어지고 과여가 없어지고... 이러한 모습을 반복하였다.

7) 여성문제 연구 소모임의 분명한 방향이 없다.

여학생운동에 있어 의식화의 주된 장을 이루는 것이 여성문제 연구반이다. 그러나 여연 또한 통일적 지향을 갖지 못한 채 다양한 수준과 형태로 존재한다. 이것은 여연 일꾼과의 연석회의를 갖고 여성문제 연구모임과 여학생회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소모임 일꾼과 여학생회 일꾼들이 집단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통일적 지향을 모아보자.

마치며

투쟁국면이다. 김영삼 정권의 사대 매국성은 미국의 강도적 수입개방 압력에 대한 무능력과 신한국 창조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허울 속에 극명해졌다. 김영삼 정권은 허울뿐인 개혁으로는 더이상 민중의 자주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의 본질적 지배 방식이자 통치이념, 통치형태인 매카시즘 선풍으로 폭압 정치, 신공안 정국을 조성해 이 땅의 모든 애국 세력들을 탄압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정세를 돌파하는 것은 민족과 조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학생들의 힘과 지혜가 담긴 투쟁뿐이다.

이러한 투쟁국면 속에서 여학생운동은 자기 내용성 확보와 청년학생운동에의 복무라는 역할 속에서 두가지를 분리시켜 사고하여 계속 이어지는 일상사업 속에서 투쟁을 부담으로 여긴다든지 자기내용과 일상사업을 떼우기 식으로 하고 투쟁

에 기초없이 달려 간다든지 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사업과 투쟁은 핵심을 만들도록 단련시키는데 복무해야 한다는 명확한 관점 속에 투쟁을 조직사업으로 연결시켜내고, 여학생운동이 청년학생운동에의 복무라는 명확한 부문운동으로서의 자기 규명과 올바른 원칙 속에서 정세에 어둡기 쉬운 여학생운동의 난점을 극복하고 일상에서 격하되기 쉬운 결의의 장으로, 단련의 장으로 투쟁을 주도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투쟁과 일상사업 속에서 현 시기는 어느 때 보다도 주체의 혁신과 결의가 요구되어 지는 때이다. 여학생운동은 투쟁 속에서 자기 내용을 확보하여 단위 조직력을 탄탄히 세워내고 여대협 중앙으로의 통일집중, 강화시켜 내야 한다. 지역 여대협의 강화로 전여대협을 탄탄히 세워 내고 이를 통해 한총련을 강화시켜 내야 할 것이다.

정신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정오가 되면 일본대사관앞에는 정신대 할머니들이 시위를 하신다. 이때까지 130여회로 한문제로 최장기시위를 기록하고 있다.

1. 근국주의 부활을 꿈꾸며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일본

지난 8월 31일 일본 무라야마 총리는 전후 50주년을 앞두고 전후문제처리의 방안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담화문은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취해왔던 일본군 위안부 및 일본이 과거 아시아각국의 민중에게 저지렀던 온갖 범죄와 악행에 대한 입장에서 색다른 내용은 없다.

일본내각총리의 담화문에서는 <평화우호교류계획>을 발족하여 일본국민과 근린 각국민이 손을 잡고 아시아, 태평양의 미래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서로의 아픔을 극복하고 구축되는 상호 이해와 상호 신뢰라는 부동의 토대라고 했다.

평화우호교류계획은 10년간 일천억엔상당의 기금을 가지고 주로 청소년교류사업, 자료센터설립의 계획은 일본이 새롭게 아시아에서 자신의 영향을 펼치려는 문화사업의 일환이다. 과거 역사적 범죄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배상도 않는 그러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무슨 역사적 자료를 모아서 자료센터를 만들것인가 의문이다.

또한 이러한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 자체도 진정한 전후종결의 의미보다는 자국의 이익이 우선되었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 일본총리가 발표한 담화문은 일본의 UN상임이사국 진출을 바라보며 전후책임에 대한 각국가의 주시와 책임질타를 의식하며 행하는 정책인 것이다.

2. 정신대 문제는 이렇게

정신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일간에 전후 처리문제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느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본은 전쟁이 끝난지 거의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반성이나 배상을 전혀 하지 않는 이유는 재산청구권 문제는 '65년 한일 협정으로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한 채 정신대 문제를 비롯 식민지 만행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진정한 사죄도, 배상도 않고 있는 것이다.

한일협정은 일제에 의한 조선의 식민지 통치가 끝난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체결된 것이지만 마땅히 과거의 역사에 대한 청산의 표현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 내용에는 과

거의 침략시대에 대한 일본측의 사과 및 반성의 의사표시는 전혀 없다. 한일협정에서 다루어진 의제는 전체적으로 한일 기본 관계, 대일 재산 청구권, 재일 교포의 법적지위, 평화선, 어업문제라는 4가지의 주요의제로 국한되고 말았다. 이들 의제중 일제하의 강제연행자 문제와 관련있는 대일 재산 청구권문제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대일 배상의 청구를 포기한 상태에서 '재산청구권'에 의제를 국한시켰고,내용 중 '피징용 한국인 미수금,보상금'이라는 조그만 구절이 눈에 띄일 뿐이다. 이러한 재산청구권 문제는 5.16이후 군사정권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발전계획을 급속하게 추진하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한일 협정에서 구하게 되자 결국 무상3억, 유상 2억달러의 경제협력자금 지원으로 청구권은 결말을 보게된다. 더군다나 정신대에 관한 문제는 언급조차 없으며 일본은 국가 개입 여부를 부정해 오다가 근래들어서야 인정하기 시작했다.

최근 주요 변호사 단체인 국제법조인위원회(IJC)는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군대위안부들에 대해 완전한 명예회복과 배상을 해줄 '도의적,법적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일본은 이를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라야마 정권이 계획하고 있는 민간기금을 통한 위로금 지급안은 당장 철회하고, 일본 정부로 하여금 법적 책임을 이행하게 하는데 피해자,우리국민,정부가 한 뜻이 되어야 할것이다.

3.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그렇다면, 일본정부가 말하는 상호이해와 상호신뢰의 토대라는 것은 진정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가.

먼저,과거 역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일본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자료들을 당장공개하는 일부부터 시작해야 할것이다.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도,미공개 자료를 공개하고, 끌려간 위안부의 총수,명령체계등을 밝히는 진상보고서를 내야한다.

둘째,일본은 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민간 위로금모금을 하기전에 분명한 사죄와 개인에 대한 국가배상이 이뤄져야한다. 그간 일본수상들이 공식석상에서 혹은 사적인 모임에서 과거 전쟁에 대한 애매모호한 사죄표시를 했지만 최근 나가노 법무장관과 사쿠라이 환경청장관등의 발언에서 드러났듯이 수상의 개인의 사죄는 내각의 각료들에 의해도 전받고, 부인당해왔다.

이렇듯이 일본정부의 사과없이 받는 민간이 주는 위로금을 피해자나 우리정부가 받아들인다면 피해자들은 역사의 증언자이며 피해자라는 사실은 없어지고 단순히 불쌍한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들의 명예회복의 길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민족사에서는 지난 65년과 같은 역사굴욕의 오점을 다시한번 남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20만명이라고 추측되는 정신대여성의 80%를 차지하는 한국정부는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하였던가.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가장 큰 피해국이면서도 인심좋은 나라라서 그런지 자존심도, 벨도없이 아무런 진상규명이나 피해보상을 제대로 요구해본적이 없다.

독일이 전후 배상이 처음에는 이스라엘,프랑스 등의 정부와 유대인의 단체의 압력에 의해 추동되었고, 대만의 경우도 대만인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1988년 제정된,대만 주민 유족조위금 지급법에 따라 3만명이 1인당 2백만 엔씩 지급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볼때 일제 피해보상에 대한 한국정부의 미온적 태도는 피해보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법상으로 식민지 지배나 전쟁등과 같은 경우 배상,보상문제는 국가간의 '일괄타결'의 방식이 도입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본국이 가해국에 대해 자국민이 침해한 권리구제를 주장하지 않거나 소극적일 때에는 가해국은 국제적 교섭의무를 지지 않게 되며, 국내적으로도 국제법의 제약에서 해방되는 것이 상례이다.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한인 피해자들의 보상문제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한국정부의 소극적인 '외교적 보호권'행사경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인권 침해'이자,전형적인 '피해자 본국의 책임방기'이다.

<전 강제종군위안부 증언>

노청자 할머니

나는 1922년 2월 16일 충청남도 유성, 가난한 소작농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 형제와 같이 생활하며 집안일과 농사일을 돕고 있었는데 1938년 3월 내가 16세이던 봄, 어머님이 마을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군대에 끌려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는 설마 우리 마을에까지 군대가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을 들은 지 5일 후 내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후 쯤 어머니가 황급히 달려와 나에게 가져온 점심을 먹인 후 자신의 치마를 벗어 그것을 나의 머리에 씌우고 “5병대가 왔어, 빨리 아주머니 댁으로 피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불안했으나 처녀라는 것을 모르도록 어머니의 치마를 머리부터 쓰고 도보로 2시간 거리의 산속의 아주머니 댁을 향해 필사적으로 걸어갔습니다. 약 1시간, 아주머니 댁을 향해 거의 반정도 걸어 갔을때쯤 나는 일본군이 7명(헌병1명, 병사6명)에게 잡혀버렸습니다.

군인들이 나의 손을 잡아 끌고 다리를 잡았기 때문에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군인 중 한사람이 어깨에 메고 그대로 트럭에 실었습니다. 언덕을 올라 내리막길에 트럭이 있었습니다. 트럭 한대에는 18세 전후의 여자가 나를 포함해서 38명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감시관인 30대의 일본인 여자가 2명 타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모두 손을 마주잡고 ‘우리들은 이미 다죽었어, 죽은거나 다름없다’고 하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트럭은 그 날 오후 마을을 떠났습니다. 나는 다른 여자들과 같이 창고같은 곳으로 끌려가 주먹밥과 물을 받은 후 트럭은 야간에도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 2일간 기차를 타고 타이까친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다른 여자들과 같이 창고 같은 곳으로 끌려가 주먹밥과 물을 받은 후 트럭은 야간에도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 2일간 기차를 타고 타이까친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 대기하고 있던 트럭에 실려 3-4시간 이동한 뒤 오오테산에 도착했습니다.

오오테산 부대는 성벽안에 있었습니다. 38명의 여자들은 모두 같이 끌려 왔습니다. 위안소는 부대 안에 있었습니다. 마굿간 같은 곳이었는데, 작은 방에 판자로 칸막이를 했습니다. 2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 크기의 방이었고, 방 앞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판자 마루에 얇은 요가 깔려 있었습니다. 마굿간 같은 곳은 작은방이 몇 개나 있고, 38명의 여자가 들어가기도 방 5개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27번이었습니다.

마굿간 같은 곳에 들여보내지고 군인이 왔을 때 처음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군인들을 상대해야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때일을 생각하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군화에 얼굴이 채여 코피가 났습니다. ‘조선인인 주제에 이년이...때려눕혀 주지’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굴욕의 매일이었습니다. 오전은 일반병사가 왔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목욕을 한 뒤 오후에는 상관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하루에 30-40명의 군인을 상대해야만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다리가 붓고 아픈 것은 이때의 일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휴일은 한달에 한번 뿐이었습니다. 생리중이거나 몸이 많이 불편할 때는 ‘저는 생리중이에요’라고 해 일부러 속옷을 더럽히기도 했습니다. 생리중에도 상대를 시키는 군인은 있었지만 그래도 보통 때마보다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1주일에 한번 군의가 성병검사를 했습니다. 성병에 걸린 여자는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콘돔은 군인에게도 군대위안부에게도 지급되었고, 반드시 사용했습니다.

위안부 생활에서의 조그만 즐거움은 위문 주머니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위문주머니는 한

달에 한번 정도로 배부되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일본식 숙치마와 통조림, 비누, 크림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위안소에서 돈을 받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군인중에는 건빵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던져 보냈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3번, 한 끼에 10분정도로 밥과 국을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언제나 정해진 25-26세 정도의 군인이 날라 왔습니다. 식욕이 없어 못먹을 때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치마저고리를 입고 있었지만 잠시후에는 기모노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기모노를 입으라는 명령이 내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기모노를 입고 대일본 국방부인화라고 쓰인 어깨띠를 했습니다. 이런 날은 특별한 날로 하나는 전승을 축하하는 때로서 기모노에 어깨띠를 한모습으로 성벽 바깥으로 나서서 있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붙잡힌 팔로군 병사를 살해하는 현장에 입회할 때였습니다. '용기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 보게 하는 것'이라며 군대 위안부 여자들에게 기모노를 입도록 명령해 살해 현장에 입회시켰습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입회해야만 했던 날 밤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1시간 마다 교대로 군인이 위안소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시는 처음에는 5명, 얼마 지나고 나니 3명이었습니다. 성벽안에 있던 의복 판매상 집을 방문할 때도 군인이 따라와 혼자서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상인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상인은 한국인으로 천진으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나에게 이삿날을 알려 주었습니다. 나는 상인이 장사하는 커다란 상자에 들어가, 위에는 담요를 덮고, 그 위에 옷을 넣고 숨어 그 상인의 도움으로 위안소를 탈출 할 수 있었습니다. 위안소에 끌려온 지 2년 후인 1940년 3월이었습니다. 나는 탈출을 도와준 상인의 사실상의 양녀가 되어 양부모와 같이 천진에서 지냈으나 양부모가 귀국하게 되었기때문에 1947년 내가 25세이던 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나는 아버지와 여동생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연행된지 5개월 후 군무원으로 남양군도에 끌려가 거기서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정신대로 끌려 갔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어 고향에서 계속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고향을 떠나 심부름 등을 하며 혼자서 생활해 갔으나 언제나 고달팠습니다.

몇번이나 죽을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살아온 것은 언젠가 일본의 책임을 밝혀 일본에서 배상을 받아내고 남양군도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비석을 세우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2의 동지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신은정(중앙대학교 총여학생회 정책, 문예창작학과 92)

낙엽도 그렇고 스산한 바람도 그렇고 이래저래 심란한 10월 막바지 무렵 저는 우리 모두가 그때즈음이면 고민하게 되는 전망 문제로 골치를 썩어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은 학과의 학생회장직이었지만 예비역 선배님들의 눈치도 그렇고, 열심히 밀어주는 동기들 앞에 “여자인 내가.....”를 핑계로 달고 다녔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스스로의 마음일뿐 정작 함께 해 줄 사람에 대한 불안한 심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해 할 일들을 덜컥덜컥 결정한다는 유명한 장소, 그래서 10월 말이면 유난히 심각히 이야기를 나누는 선후배가 마주 앉아있는 예술대 건물 구름다리에서 나의 운명 역시 결정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언어의 마술사로 불리는 그 선배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드는 생각은 역시 선배의 침은 로얄제리라는 겁니다. 물론 자신의 삶과 행동들은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뿌리가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해 겨울, 총여학생회라는 어찌들으면 낯설기도한 단위의 선거본부원으로 날밤 지샌 기억들을 떠올리면 ‘역시 넌 강한 여자야’ 하는 생각이 슬며시 들어 피식 웃기도 합니다.

어쨌건 저의 새로운 배움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여러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함께 하는 동지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은 얼마나 많았던지 이제 슬슬 그 이야기들을 풀어보려 합니다.

세상의 절반 여성의 자각

정의에 투철하고 새 것에 민감하다는 이유로 열심히 배워나가고 그러다가 선배가 되고, 그래서 고민이 깊어지면서 한사람의 운동가는 탄생하듯 저 역시 단순무식한 시절에 선배들을 만났고, 누구보다 인간적이고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바로 운동권(?)이라는 깨달음으로부터 함께 그 길을 걸은듯 싶습니다.

그렇게 배워오던 내게 있어서 여학생운동은 어찌보면 시시한 것이었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학생활동가들은 통이 커져야 한다는 등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총여학생회 회장언니는 내게 “네가 열심히 하는 것이 듣직하지만 총여학생회 일을 하려면 적어도 여성문제 맞은 봐야한다.”며 책 한권을 주었고, 밤새 한 권을 다 읽고 나서는 희미하게나마 ‘나도 여성이구나.....’하는 자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나면 제일 먼저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남자들과 논쟁을 하기도 하고, '아, 이다지 답답할 수가' 하면서 푸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 속에서 난 여성을 알아갔고 그와 연관된 한국 사회, 세계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조금 여유로워지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몽정휴가의 생리휴가

얼마전 총여학생회 집행부의 생일을 맞아 조출하게 술자리를 벌인적이 있습니다. '총여학생회' 하면 웬지 조심스러워 하는 남자 간부들은 여성문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이야기는 생리휴가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졌습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와 여성고용촉진을 근거로 내세워 유급생리휴가 폐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 주야교대근무, 위험,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각종 휴가제도의 도입을 전제하지 않은 유급생리휴가의 폐지는 여성노동자들의 모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여성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모성보호 조항 조차 폐지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우리는 분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결코 여성들만의 몫은 아니며 오히려 모성보호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모성보호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려는 사고에서 벗어나 사회적 차원에서 책임지려는 건강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간부는(물론 장난기가 섞였겠지만) 남성들도 몽정휴가를 줘야한다며 이 유가 불분명한 말로 투덜거렸고,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서 끝까지 서로의 의견을 한발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남성들의 몽정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나중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며 알아본 결과 그것이 여성들의 생리와는 비교도 안되는 억어지의 발언이며, 처음에는 수긍하는 듯 하지만 돌아서면 픽 웃어버리는 남성들의 사고를 읽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소한 예였지만 그러한 일들은 우리들을 답답하게 만들었고, 여성의 문제가 남성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문제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 그중에서도 변혁을 꿈꾸는 남성간부들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쟁들을 두고 혹자는 이야기 합니다.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피해의식에 젖어있다거나 소심하다고.

물론 넓게 사고하고 만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함께 하는 이들의 잘못된 생각은 그때그때 바로 잡아주거나 함께 이야기를 해야할 부분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그저 편협한 사고라고 매도하는 것은 결코 옳바르지 못한 생각이라고 믿으며, 더군다나 남성간부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들이 우리들을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스스로의 논리에 묶여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고집을 만나곤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7대의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총학생회 간부 한명은 총여학생회 회장에게 회장의 칭호를 불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단대장들에게는 꼬박 칭호를 불

허주면서 유독 총여학생회회장에게만 자연스레 이름을 부르자 총여회장은 얼마간을 지켜보다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00국장님은 왜 저 한테는 직함을 안부하시세요?” 그 간부의 대답이 더 가관입니다. “너는 내가 안뵈었잖아.”

그렇다면 다른 단대장들도 전부 그 간부의 손으로 뽑혔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그렇게 말하는 ‘학우사랑’에서 여학우는 늘 제외되어왔던 것인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씁쓸함보다는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중의 힘을 믿고, 변혁을 꿈꾸는 사람, 그리고 내 어머니, 내 누나의 문제를 제외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올바른 사회를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시대의 진정한 구호 ‘함께가자 우리 여 길을’

총여학생회라는 단위가 총학생회보다 정치력이 약한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총여 간부들은 많은 고민과 가벼운 한숨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화를 기반으로 한 정치력 강화의 뭉은 물론 총여 간부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하나된 공동체를 꿈꾸는 이들의 뭉이지만, 함께 하면 짐은 반으로 줄어들고 보다 질 높은 인식에 기반한 대중 사업을 펼쳐가리라 믿습니다.

인간본위의 사고, 사람사업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생각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뭉을 정당히 분배받고, 남성이 갖는 사회구조적 억압과 여성이 갖는 같은 억압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길이야말로 우리의 일은 아닌지.

이른 아침 총여학생회로 들어서 교정과 연못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해방이 우리의 변혁이 모두의 문제임을 알 듯 서로의 모습들을 존중해주고, 신뢰하는 가운데 진정한 사랑과 구호가 있을 것입니다.

대학에 입학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인식이 스스로의 변화발전을 이끌어 주었듯 우리 모두가 또 다른 낯은 사상에 묶여 있는 피해자라는 마음으로 가장 가까운 벗 여성을 그리고 남성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그마한 변화가 우리를 발전시킨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50년 9월 어느날 총여학생회실에서